

문화



‘안티고네’로 광주 연극계에 신고식을 치른 연출가 양혁철씨.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즐겁게, 마음껏, 닥치는 대로 다양한 장르 작품 만들고 싶어”

30년만에 귀향한 양혁철씨  
연극 ‘안티고네’로 광주 데뷔  
러시아·영국 유학... 연출 배워

“러시아가 정통 스타니스라브스키 연기를 기반으로 자신의 것들을 가르친다면 영국은 전 세계 시스템을 갖다 놓고 비교 객관화하는 과정을 가르쳐요. 양쪽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연출은 배우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가지 것들을 내가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는 지도 교수의 말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 있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작품에도 참여했지만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예술에 재능이 없나 보다 여겼다. 수확학원을 해도 될 것 같고, 어릴적 꿈이 과학자였으니 물리를 다시 해도 좋을듯했다. 그 전에 작품 하나만 마음껏 해보자 싶었고 집에 있는 곶감 팔아서 제작한 게 ‘톱넴버 13’이었다. 그런데 이게 대박이 났다. 돈도 벌며 대학로에 ‘톱넴버 13’ 전용관인 극장 ‘가자’와 극장 ‘아시쇼’ 두곳을 운영중이다.

“대학로는 전쟁통이예요. 모든 것을 찾아보고도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안되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이 엄청나요. 그래서 관객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지역 연극계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기운을 얻고 싶었죠. 무엇보다 대학로 생활이 많이 지쳐 있기도 했구요.”

3년여 동안 광주 연극을 보며 낙향을 꿈꿨던 그는 푸른연극마을을 오성남 대표와 만나면서 목표로 내려왔다.

“좋은 작품을 관객이 최대한 즐겁게 보도록 제작하는 게 제 꿈입니다. 매년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도 싶어요. 스타일리시하고 멋진 연극을 만들고 싶습니다. 수 천년전 그리스 비극인 ‘안티고네’는 어쩌면 지금 관객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이야기일수도 있죠. 그리스 비극이나 셰익스피어 희곡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스타일 리쉬하게 만드느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광주에서 첫 작업을 하면서 양씨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작 시스템이다.

“상근은 아니지만 제가 서울에서 작업하면 조영·무대 등 협업하는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광주는 연출이 모든 걸 해야하거든요. 시스템의 전문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연출의 상상력을 실현해주는 게 바로 스태프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연출이 다른 부분을 신경쓰고 있으니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게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양씨는 이제 막 광주에 발을 들인 상태라 많은 것을 살피고, 알아가는 중이기도 하다.

“배우에게는 작품에 따라 바뀌는 유연성이 가장 중요해요. 배우가 말을 내뱉는 순간 내 충동과 심리가 그대로 나와야 해요. ‘척’이 아니라 ‘진짜’여야 하죠. 배우가 뜨거워야 관객이 뜨거워지고, 배우의 마음이 움직여야 관객도 움직여요. 저도 그렇지만 연극하는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스타일대로 살아가요. 지역 연극계

## 설경구와 ‘학전’ 활동, ‘라이어’ 연출 ‘톱넴버 13’ 제작, 전용관 두곳 운영 지역 연극·배우들 서울 입성 노력

를 최대한 존중하고 고민하면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양씨는 푸른연극마을을 회원으로, 또 개별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작은 음악극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하고 있다. 지역 연극과 배우들을 위한 대학로 극장 활용한 방안도 고민중이다. 우선은 푸른연극마을의 대표 레퍼토리인 ‘사평역’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에서 함께 작업하는 극작가가 내려와서 연극을 봤어요. 배우들과 아픈 과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소극장 버전으로 고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라 생각해요. 작품을 잘 만들고 저희가 갖고 있는 홍보시스템과 결합하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서 좀 더 빨리 왔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다는 양씨는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서 새로운 형식의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제주 ‘건강과성박물관’ 개관 6주년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건강과성박물관 전경. 지난해에만 35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중문관광단지의 필수 관광코스 자리매김했다.

## 건강하고 행복한 성문화 알린다

### 전 세계 수집 작품 3만여점 갖춰 교육관·문화관 구성... 세계 최대 규모 ‘에로티시즘 공모전’ 당선작 전시

국내 최대 규모의 성(性) 관련 전시물을 갖춘 제주 건강과성박물관(관장 최강현)이 개관 6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성을 주제로 한 국내 전시관 중 유일한 1층 전문 박물관인 건강과성박물관(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은 최근 기존 2층 전시장을 증축, 전 세계에서 수집한 3만여점의 전시물을 갖추고 야외 조각공원을 넓히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성 테마 박물관으로 발돋움했다.

박물관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됐는데, 1층은 성교육관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성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창구로 이용된다. 건강한 성생활이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 간접체험 형식으로 지식을 전파한다. 2층 성문화관에서는 전 세계의 성문화를 어떻게 발전하고 달라졌는 지 여러 전시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판타지관에서는 다양

한 조각과 거울, 미로 등을 활용해 관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준다.

성갤러리에서는 박물관이 매년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 에로티시즘 미술작품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들이 전시된다. 총상금 2000만원 규모의 국내 최대 성 주제 미술 공모전만큼, 눈에 띄는 그림과 조각으로 채워졌다.

지난 2006년 개관한 건강과성박물관은 지난해에만 35만명의 관객이 들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도 크게 증가하는 등 제주 중문관광단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다. 3만여점에 달하는 조각·회화·사진 등의 전시품은 모두 설립자인 김완배 씨비밀산 대표가 무역업을 하며 전 세계에서 수집한 것들로, 비슷한 주제의 박물관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진귀한 볼거리가 많다.

부부심리 전문가 및 성교육 전문가로 활동중인 최강현 관장은 “해외에서는 에로티시즘 관련 미술작품이 100만달러 이상에 팔릴 정도로 성 관련 문화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가격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며 “관객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성문화를 알리고, 국민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공모 29일까지

광주미술협회가 ‘제 24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작품을 공모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원서와 50호~120호 이내 한국화(민화 포함) 작품을 비엔날레 전시관에 제출하면 된다.

원서는 미술협회, 전국 미술대, 예술의 거리 내 7개 화방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www.gwangjuart.org)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면 된다.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 광주광역시장상(최우수상)은 500만원, 우수상 100만원, 특별상은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자는 내년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개인 초대전을 열어준다.

수상자는 다음달 4일 발표한다. 문의 062-222-8053.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박학선씨 초청, 오늘 ‘상록인문학강좌’

광주시립미술관은 20일 오후 3시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사진작가 박학선(58·사진)씨를 초청, ‘상록인문학강좌’를 연다.

박씨는 이번 강좌에서 ‘천명을 받들어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지금껏 세계 각지를 돌며 촬영했던 사진 작품을 소개·설명한다. 박씨는 또 참가자들과 대화의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씨는 광주 출신으로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비롯, 세계 오지 및 분쟁 지역에 대한 영상·출판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의 062-613-5393.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꽃’ 임남진 개인전, 오늘부터 신세계갤러리

꽃을 소재로 한 작품이지만 사뭇 묵직한 분위기가 전시관을 채운다. 작품을 대하는 작가의 존재론적 사유 때문일까.

임남진씨가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여는 전시는 꽃을 바라보는 작가의 깊은 시선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여여(如如), 무위(無爲)로서 피는 꽃, 지는 꽃’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러는 다소 난해한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전시에 선보인 묵련, 벚꽃, 켈레꽃, 할미꽃 등을 담은 25점의 작품은 그저 꽃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꽃을 통해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 희로애락(喜怒哀樂) 등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인다. 문의 062-360-1271.



‘상사(相思)-파랑새’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2012년을 보내는 뜻깊은 자리를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